

연령통합적 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효 선(이화여대 석사과정)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 여가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령통합적 여가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관된 여가경력을 개발하여 좀 더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가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연령통합적 여가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연령별로 자원봉사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연령통합적인 여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 10일간 실시된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만 15세 이상의 3,051가구원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다. 연구범위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관련 항목 중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항목을 선별하여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성별, 학력, 소득수준, 혼인상태를 변수로 선정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χ^2 검증(Chi-Square Test)과 일원배치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연령별로 자원봉사 활동 분야, 참여시간 분포, 미참여자 장애요인을 살펴,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3051명 중 18%인 555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특징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였고, 소득분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0대를 제외한 학력분포는 자원봉사 활동 경험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참여 평균 시간은 50.3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자원봉사 참여시간은 10대가 가장 적었고,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련 활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원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자원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학업과 경제활동에 치중하는 연령대인 10대-50대는 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반면, 60대 이상은 건강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장애요인 간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각 연령별로 각기 다른 자원봉사활동의 행태를 보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적인 여가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 변화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자원문제'가 의식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각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여가활동으로서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